

회원인 글

사랑하는 범익 형제에게

전 일 승(신입부 리더)

날씨 얘기를 하면 약간은 그리워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엔 날씨가 참 좋습니다. 햇살도 따스하고, 하늘도 맑구요. 하루종일 사무실에 앉아 작업시간에 잠깐 밖에 나가서 걷다보면 요새 날씨가 참 좋구나 하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세요? 요즘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소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끔 낙담할 때도 있고 또는 그걸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은 너무 쉽게 상함에 좌우되고 또 감정에 치우치거든요. 상함과 감정이 아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범익 형제님,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해 막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더 겸손해집니다. 사실 전 아직 서론 정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담고 있는, 그리고 형제에게 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늘 기억하셨으면 해요.

공부하느라 힘들죠? 시간이 많이 부족할 텐데도, 배지지 않고 끈박끈박 나오는 걸 보면서 형제의 성실함을 제가 배웁니다. 알차고 저질없는 있게 공부해서 꼭 합격하길 바래요. 공부할 때도 형제가 세우게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구요.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은 가족들이 형제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있지만 그 부분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해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이제 몇 주 후면 새로운 조에 가서 공부할텐데, 기대하고 계속 연락하고 또 서로 기도 부탁도 했으면 합니다. 형제는 잘 자랄해서, 신중하고도 정성스럽게 기도할 겁니다.

청년부 안에서 앞으로 알아가게 될 많은 젊은이들과 의미있는 교제를 많이 나누길 바래요.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막 돌아난 새싹과 같이

우 현 미(72동기)

늘 나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항상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 나. 옆에는 아직도 잠을 덜고 있는 동생. 그런 동생을 부러워하며 몇 번의 뒤척임 뒤 후에 일어나게 된다. 사회 생활을 한 지 5년이다.

시골에서 부모님, 동생들과 함께 지내던 때를 그리워한다. 교향의 작은 교회(성도가 200명쯤)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했다. 어머니가 섬기시는 주님을 나도 그대로 섬기게 되었고 그런 자연스러움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당연하다고만 생각했다. 힘든 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뭐 필요한대요'라고 졸라댔다. 그래서 난 늘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

시골 교회에서 섬기기를 다하고 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우선 주일을 잘 지키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집에서 가까운 충현교회로 나왔다. 교적변호를 받는 것이 생소했고 엄청난 교회의 규모에 놀랐다. 그때 어머니께 전화하면서 '엄마! 교회가 엄청나게 커. 문이 무슨 성문처럼 크고 여러 개야. 너무 잘 지었어. 멋있어!'라고 말한 것이 생각난다. 등록한 얼마 후 교구 구역장님,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심방을 오셨을 때 목사님께서 '꽤 생황이 험하지만 하나님처럼 크신 분, 초순신 분이 항상 함께 하시니 의지하고 신앙이 잘 자랄 수 있게 힘쓰세요.'라고 하셨다.

청년부에 참석했다. 많은 지체들이 사랑을 베풀고 받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내가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던 한 동안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웠다. 지체들이 전화를 하여 걱정하고 함께 기도했다.

일년의 외도 후에 다시 청년1부에 속했다. 이젠 또 달라보였다. 초 나들이 즐거웠고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역시 기도의 힘이란 크다는 걸 느꼈다.

같은 동기들이 새벽기도와 QT를 매일 거르지 않고 하는 가운데 신앙이 자라가고 생활에 늘 즐거움이 가득한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출근해야 하는 나에겐 그게 큰 부담이다. '그럼 직장에 출근해서 해볼까? 출근하자마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은데 ...' 그래서 또 힘들게 되었다. 가끔 시간이 생기면 기도하고 QT 하는 정도였다. 늘 빈곤한 영적 생활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DFD(목요성경공부)를 권유하길래 자의반 타의반 시작하게 되었다. 훌륭한 간사님으로부터 내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면부터 다지게 되었다. 꼭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았던 내 신앙생활이 반석 위에 집을 같은 건이 되었다. 쉽지 않았던 나중에서도 이런 내 생활은 어떻게 얘기하게 되고 성경 읽기와 기도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다. 요즘 아침에 출근해서 조용히 QT를 한다. 매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QT를 한 하루는 그 만큼 여유도 있고 주님을 더 담가려는 생활을 하려 노력하고 생각하게 된다.

잠시 앞은 27년 전 신자 모습에서 이제 막 돌아난 새싹의 풋풋함이 있는 새신자 모습으로 다시 살고자 한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고픈 빈곤 모습에서 좋은 것, 유익한 것으로 가득 채워 나눌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새신자 모습으로 변화하길 소망한다.

?

그림 황 인 원(73동기)



청년 공동체 모임, 다음엔 꼭 함께 해요.

※ 캐릭터 그림을 저자 주재호(청년1부 편집)

팀별 수련회

나 이렇게 보냈수 ...

김 정 민(70동기)

"도대체 되는 일이 없군! 제기랄."

얼굴은 굳어 있고 누군가 고투리란 잡히면 대판 싸울 것 같은 기분이다.

모하이는 팀별 수련회라니, 맘소이!

수련회에 참석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 같은 기분으로는 결코 참석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지?

은종일 참석 여부를 놓고 마음 속에서 티격태격 싸움을 벌였다.

마태복음 7장을 다섯번씩 읽었을 때 마음에 깊은 절망이 있었다. 내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가득했음을 시인한다.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어쩔 이렇게 정곡을 찌르실까! 피해 도망갈 길이 안보이네.)

그렇게 참석한 팀별 수련회.

1팀은 먼저 장남역에 모여 양재역 근처까지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착한 곳은 불림장. oh! happy day ... 우리는 네 조로 나누어 불림을 했다. 내가 속한 조는

모하는 사람만 모였기 때문에 불이 도망에 빠지거나 편을 몇 개만 쓰더라도 큰소리로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중 유난히 모하는 자제가 있었다. 정성을 다해 포즈와

기술을 가르쳐 준 형제의 노력은 아랑곳없이 불은 계속해서 도망을 질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꾼에는 여유있는 미소가 있었다.

불림을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박수와 환호로 격려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뒤로 중 한 명이 집을 개방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미안함을

털고 하고 거실에 용기풍기 앉아 모다한 이야기들을 했다.

안마해 주는 사람, 음악 듣는 사람, 줄기차게 먹는 사람 등등.

서로에 대한 관심과 끝없는 이야기에 벽은 허물어져 가고

우리의 하나님은 점점 커져 갔다.



거울성경학교를 마치고

하나님의 이름

문 상 효(유년부)



즐거움 거울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갔다. 그런데 표어가 이상하였다. 표어가 '알아가지! 이 이름,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였기 때문이었다. 엘로힘과 여

호와이레, 참 이상한 말이었다.

예배 시간,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아주 재미있었다. 캄캄케즈도 좋고, 찬양과 율동도 배우고, 식사를 한 후 전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인형극도 봤다. 부흥회에서는 세 사람이 된 삼개요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셨다. 그리고 율동게임들을 한 후 집에 왔다. 난 이 날이 정말 좋다고 아쉬웠다. 처음 전도한 것은 즐거웠지만 율동게임들을 조금밖에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여호와이레를 배웠다.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여호와이레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채워 주신다는 뜻이었다. 부흥회에서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를 설교해 주셨다. 부흥회를 하고 나서 성경이야기대회를 했다. 이번에는 연습을 게을리하여 작년 기록에 미치지 못하고 정말로 못한 것 같았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알게 되었다. '이름은 신이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음 여름성경학교에서는 더 많은 아이들이 놀랍고 좋은 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신앙성립

몰몬교

(Mormonism)

정 현 민

(목사, 16교구·장3부·범조인전도회·도시장학회 지도)

질문 / 젊게 맑은 머리에, 맑은 감은 양복을 입고, 가슴에는 명찰을 달고 다니는 미국 청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국 청년들도 한복이 있는 하더군요. 이 사람들이 소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의 학생들, 곧 몰몬교도들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몰몬교가 과연 어떤 교에서 크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몰몬교의 창시자는 요셉 스미스(그림)인데 그가 장로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던 때에 여러 교파들간에 논쟁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파 결정 문제로 고민하던 중 야코브서 1장 5절말씀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게 회개 후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찬상과 계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 찬상과 계사가 몰몬교가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요셉 스미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경쓰기를 마친 후

곽 계 자(집사, 1교구)

할렐루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끄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주사 96년에는 신구약 성경을 6번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댕지 97년에는 성경을 꼭 한 번 쓰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받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쓰지 않고 간다면...' 하는 마음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불규칙적인 생활과 끈기가 부족한 자신을 생각하니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를 시작으로 말씀을 기록하니 마치 태초의 천지창조를 보는 듯 우주 만물을 통한 은혜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베풀어 왔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딤후 3:15-16)

말씀 구절구절을 통하여 듣고 읽을 때보다 더 깊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꽃보다 더 달다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구약을 쓸 때는 오실 메시아,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신약에 이루어진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성경쓰기를 하는 동안 순간순간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며 힘과 용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기도하되 도와 주신 많은 분들과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성도님들도 꼭 한 번 성경을 씀으로써 은혜 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갖고 글을 씁니다. 다시 한 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것은 요셉 스미스의 승낙서나 증명서를 가져야만 그들이 원하는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몰몬교의 치명적인 오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셉 스미스는 몰몬경이야말로 '땅 위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바른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몰몬교도들은 삼위 하나님의 개체성만 주장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으로 지음 받은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첫째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몰몬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을 격하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인간을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부상시키기 위한 시도였으며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 몰몬경전 받는 모습

신앙성립에 대하여 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린 집회를 통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영감받은 주시가 바랍니다. 몰몬교로써 영감받은 주시며, 여러 교파의 신자들의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통해 단편적 지식으로 영감받으십시오.

지체들 소식

▶ 영아부 / 지난 3월 15일 1부예배를 드린 후 연구 수업을 열었다. 우리반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라고 모든 교사 앞에 공개했다. 아기들의 집중이 5분도 지체 않았던 한들지 없다. 그럼에도 지체있게 진행되는 선생님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다. 엄마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과 아기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보다 쉽게 전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정성으로 준비한 선생님, 이번 연구 수업으로 인해 영아부 봉사함에 있어서 사랑과 인내와 정성이 꼭 필요함을 느꼈다. 더 많이 기도하며 더 열심히 연구하여 모든 교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한다. (송혜경 통신원)

▶ 유아부 / 다음 주(3월 29일) 주기도문 외우기 대회를 실시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본을 토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중등2부 / 우리 중등2부에서는 많은 양 꽃기와 전도에 힘을 모으고 있다. 목사님에게서도 3월, 4월 달 단 연속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하고 지난 3월 15일은 그 세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빛진 자'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열광하기 7장 9절 말씀을 타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확실하게 흔들어 놓으셨다. 드디어 교사 회의시간! '어느 학교를 중심으로 공략할 것인지', '어느 교사가 책임자로 앞장설 것인지', '노방 전도는?' 등등 침잠식을 마치고 교사 회의는 끝이 났지만 아직도 이곳, 저곳에서 무리지어 나누시는 말씀들이 사무실을 가득 메운다.

하나님께 물리워지는 향기가 된다. '그때, 우리야말로 정말 빛진 자가 아닌가!' (나성애 통신원)

▶ 고등부 / 교사를 모집한다. 봉사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이 시간 동안에는 교사회, 성경공부, 분반공부, 고등부 집회, 5부예배가 진행된다. 봉사를 희망하는 성도는 고등부 교사실(주내전) 230번, 임무천 240번, 구해원 집사로 문의하면 된다.

▶ 청년2부 / 지난 20일 밤 11시부터 충현기도원에서 교사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상기도회를 가졌다. 특송, 자제기도 시간, 산상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 장년3부 / 오늘 집회 시간에 과별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갖는다. 지정곡은 238장(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회원들이 이번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통하여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5교구 /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은 유언히 되어지는 없다. 부모 형제와의 만남이 그렇고, 특히 예수님과와의 만남

남은 기억할 수 없는 필연이다. 인생길은 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교제에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나름대로 많은 추억들을 지니게 된다. 그 중에서 성도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나 다름없고 귀하고 깊은 관계이다. 성경이나 개성은 달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교제속에서 생명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기뻐한다.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숯불은 모아 놓아야 잘타고 그 화력이 힘이 있듯이 성도간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활력소이다. 그러나 같은 교구, 같은 구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적잖이 생업 등으로 혹은 생명의 언어로 교제하는 일에 익숙지 못하여 각종 도입과 교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한 상담을 최우선으로, 각 구역별로 대심방 일자가 잡혀졌다가 되어 있다. 국가나 가정의 다름과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고 같이 나누고 서로 위로와 고통도 나누어 분담하고 서로에게 용기와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대심방 기간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한숙정 통신원)

동서울노회 제53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목사고시신청(강도사로서 목사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② 강도사 인허 고시 청원 ③ 전도사 고시 청원
④ 목사 후보생 고시 청원(홍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⑤ 신학 계속 추진 청원(홍신대학 및 홍신신대원 재학생)
- 제출마감 : 1998년 3월 22일(오늘)까지
- 접수 및 문의 : 교회 사무국 총무과(☎ 563-2339)

팀 방 - 식당

사랑의 국수



우리 교인에게는 물론 인근의 주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곳이 있다. 그곳은 선교관 지하에 있는 식당이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와서 마시고 따뜻한 열차 국물에 부드러운 소면을 받아 김치 몇 조각을 얹은 조촐한 국수를 먹을 수 있다.

이 국수를 먹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갖고 있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식사 시간이 되고 그래서 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고 자 기 집의 산재미보다 식당 국수가 맛있어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국수를 먹는 많은 사람 중에는 어찌된 건지엔 알리지 않고서 고향 배를 안고 이곳을 찾는 사람도 있으리라. 아무에게도 내색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의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고 감사의 나눔을 국수 국물엔 열거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식당은 예수님의 사랑을 피부로 체험하는 거룩한 공간이다.

식당에 와 보면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누가 이렇게 많은 국수를 매 주일 삶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14년 동안 묵묵히 식당의 모든 일을 돌보아 오신 교우 박정구 전사님이다. 식당에는 박 전사님을 중심으로 다섯 분의 직원이 근무를 하신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많다. 주일에는 아침에 1부 찬양대, 차량봉사자, 헌금수납 봉사자, 안내위원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2부예배부터 오후 3시까지 오는 한 분 모두에게는 국수를 대접한다. 그리고 평일의 직원 식사, 결혼예식의 피로연과 크고 작은 모임의 식사 등도 담당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가족식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선별하여 구워준다. 분량은 배주는 300 포기 정도, 국수는 15kg 들이 23상자, 밀치는 3kg짜리 5 상자이다. 사온 재료로 김치를 담고 밀치국물을 내고 국수를 삶는 일을 십수년간 해오신 박 전사님을 이 일이

몸에 배어서 그리 힘들지만은 않다고 말씀하신다.

식당 직원들이 이렇게 정성껏 만든 국수를 먹는 사람은 주일에만 7000명 정도이다. 물론 다섯 분의 식당 직원이 이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직원들이 모든 준비를 해놓으면 자원 봉사자들이 와서 도와 준다. 성도 중에는 배가 끝나고 나면 이곳으로 달려와 몇번씩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배식이나 설거지는 주로 자원 봉사자들이 맡아서 한다. 그리고 미화부에서는 다 먹은 식기를 모아 식당으로 운반을 해 준다.

이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도 보니 식당 직원들은 주일예배를 초대드린다. 식당에 누군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공적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없는 젊은 나뉘대로의 고종이라 한다. 그러나 음식을 만들면서 언제나 기도와서로 격려하며 믿을 생활을 한다.

식당 직원들은 맛있게 먹었다는 말 한 마디가 가장 좋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국수를 전하는 일에 인색했다는 증거다. 불평을 말하기는 쉬워도 감사를 말하기는 어렵다. 식당에서 국수를 먹고 맛있다고 감사의 말을 하는 일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식당 봉사자들은 고인들이 국수를 드시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다고 한다. 그러나 때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이 목격되던 적이 있었다. 국수는 적당한 양 가져 가서 먹고, 부족하면 더 갖다 먹

3월 29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 2부예배
임마누엘찬양대, 오케스트라
(지휘 / 장기원, 반주 / 김윤경)
〈찬양곡목〉
· 하나님 얼굴 볼 수 있네
· 그 참혹한 십자가에(한 211장)
· 크리스탈(오케스트라)
· 축복

- ◆ 3부예배
합창물야찬양대, 오케스트라
(지휘 / 김철원, 반주 / 조희영)
〈찬양곡목〉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한 40장)
·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한 507장)
· 내 평평해 가는 길(한 470장)
· 주기도

- ◆ 4부예배
이벤트찬양대, 오케스트라
(지휘 / 이수철, 반주 / 김남욱)
〈찬양곡목〉
· 나의 믿을 약할 때(한 423장)
· 귀한지 주여 날 붙들라(한 490장)
· 하나님을 찬양하라
· 주께서 이사를 열을 지키시라

- ◆ 5부예배
대학 · 청년1부찬양대, 오케스트라
(지휘 / 박원진, 반주 / 민희정)
〈찬양곡목〉
· 호산나
· 크게 기뻐하라
· 종려나무

으면 된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서 결국은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분들이 있다. 이때가 가장 안타깝다고 한다. 음식을 절대로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먹을 만큼 가져 가서 남기지 말고 맛있게 먹어야 한다. 우리가 먹을 때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식당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 그곳은 언제나 설거지 해야 할 그릇과 다듬어야 할 야채와 처리할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이다. 또 바닥에는 언제나 물이 고여 있어 목이 긴 부거를 장화를 신고 다니야 한다. 손은 언제나 젖어 있고 끈질기게 씻어야 한다. 그 속속한 곳에서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국수를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글 / 정현희 기자, 사진 / 이은구 기자)



교회소식

● 알림

- 구제현금 안내 / 29일(다음 주일) I, II, III, IV, V 부에서 실시합니다. 기도과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교구별 전도활동 설명회 / 26일(목) 19:00 캄뎀홀에서 있습니다.
· 대상: 각 교구 연합회장, 부회장
- 현금위원 교육 / 27일(금) 17:30 본당에서 있습니다.
· 대상: 예배위원의 신실 / 각 현금위원 전원
- 차량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 교회내 차량 질서 유지를 위해 봉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문의: 차량관리부실(본당 지하1층)
- 크로마하르프 · 만들린 신인 대면모임 / 3월 29일(다음 주일)까지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김옥순 집사(크로마하르프 588-6916), 이연순 집사(만들린 3463-0434)

● 모임

- 장로 회교새벽기도회 / 24일(목)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 행정위원회 월례회 / 27일(금) 18:00, 사무국
- 군전도회 월례회 / 27일(금) 17:30, 메추라기홀
- 실업인전도회 주일기도회 / 매주 15:00, 실업인전도회실
-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26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 성경공부 / 3월(목)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 권사회 제4차 월례회 / 25일(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 남녀전도회

- 바 올 4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2호
- 바 올12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408호
- 베드로 7 / 26일(목) 19:00, 시라가본
- 베드로11 / 오는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 요 한12 / 28일(토) 18:00, 김영목 집사(387-9900)
- 루디아 5 / 오는 교구모임 후, 복지관 지하2층
- 마리아12 / 오는 3부예배 후, 만나홀

● 결혼

- 도상훈군(도재인 장로, 박순옥 집사의 아들, 제19교구)과 최현정양(최현석 성도, 조영혜 집사의 딸, 제14교구) / 24일(목) 13:00 갈릴리홀
- 김성욱군(김장현 장로, 김영자 권사의 아들, 제19교구)과 최정은양(최현일 안수집사, 원영에 권사의 딸) / 26일(목) 12:30 갈릴리홀
- 한태영군(임순식 권사의 아들, 제4교구)과 한혜경양(안수현 씨, 조영희 씨의 딸, 제19교구) / 27일(금) 14:00 갈릴리홀
- 정성수군(정 은 씨, 시양해 집사의 아들, 제10교구)과 고희선양(김한순 권사의 딸) / 28일(토) 13:00 갈릴리홀
- 최성호군(최수일 집사, 정경혜 전도사의 아들, 제15교구)과 김경하양(이춘심 집사의 딸) / 28일(토) 13:00 사랑당 관학교회

● 별세

- 김경준 권사(백곡읍 집사 모친, 이종석 성도 장모, 제11교구 자하 구역) / 15일 별세, 17일 장례
- 백승려 장로(백문일 집사 부친, 김달남 집사 장인, 제8교구 군자 구역) / 18일 별세, 20일 장례

교역자 인사



그동안 14교구를 맡아 지도하던 주운 제 목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였다(3월 4일부). 그리고 14교구의 후임으로 이슬하 목사(사건, 1966, 8, 12생)가 3월 15일자 조 청빙되어 사역을 시작하였다. 이슬하 목사는 연세대 철학과와 홍익대 신대원 목회학 및 신학석사과정을 졸업하는 한편, 그동안 학생선교단체인 IVF 및 신용산교회, 대성교회 등에서 섬겨왔다. 사임하신 분이나 청빙하신 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성심한 기도가 요청된다.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75	장우주	1	소장부	최성도(8)	594	손지숙	19	대학부		614	조종현	19	청년1부	
576	최은아	2	마리아	최민석(4)	595	류현식	19	대학부		615	김정란	19	청년1부	
577	박수정	3	요한	최한영(2)	596	이재인	19	대학부		616	이재신	19	대학부	
578	이창숙	3	마리아	이본남(14)	597	연세진	19	대학부		617	김방숙	19	청년1부	양승일(17)
579	하지연	4	루디아	윤준식(17)	598	강영진	9	베드로		618	김현우	19	청년1부	김인식(1)
580	전지국	4	베드로	이국숙(4)	599	김민희	19	대학부		619	양승일	19	청년1부	김명숙(2)
581	이희영	4	마리아	이국숙(4)	600	박상정	19	대학부		620	명인주	19	청년1부	명혜영(19)
582	이우성	6	소장부	이진규(7)	601	최성숙	19	대학부		621	조영진	19	청년1부	명혜영(19)
582	한유정	19	대학부		602	최성숙	19	대학부		622	이 환	19	청년1부	이수현(2)
583	유희자	8	루디아		603	조병환	19	대학부		623	이은경	19	청년1부	
584	김지현	12	청년1부		604	박영광	19	대학부		624	김지연	5	청년2부	
585	조병남	13	요한	위옥자(13)	605	한세희	19	대학부		625	최혜송	19	청년1부	박경미(7)
586	김수희	13	요한	위옥자(13)	606	이형숙	19	대학부	김효자(8)	626	신광근	19	청년1부	
587	김수희	19	대학부		607	김순기	19	대학부	김효자(8)	627	이은희	19	청년1부	
588	김현철	4	요한		608	류현식	19	대학부	유지혜(19)	628	이은미	19	청년1부	
589	장관록	7	마리아		609	정근우	19	청년1부		629	이은미	19	청년1부	
590	송우루	15	소장부		610	김수연	19	청년1부		630	배진원	19	청년1부	
591	이숙임	17	마리아	박정숙(10)	611	오정수	19	청년1부		631	김미애	19	청년1부	
592	김경수	19	대학부		612	정경화	19	청년1부						
593	김성희	19	대학부		613	최희원	19	청년1부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 김장현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주안성경주부, 교구별 영성훈련, 남성도 구도모임, 구역장 훈련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져서 충현의 권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며, 장학생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다음 주일에 교회 전 찬양을 담당하는 임마누엘 · 오케스트라(2부), 할렐루야 · 오케스트라(3부), 아련 · 오케스트라(4부), 대학, 청년1부 · 오케스트라(5부)들이 영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한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젊은 성인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소서.
-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사게 하소서.
-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장현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현 김동석 한근수 김필수 전필준 김재철 이윤수 정갑선 정현민 조준환 조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대 김진익 권상현 사병진 이슬하
- 협동목사 윤영택 박형용 노봉린
- 선교사 이준교 안석원 김영태
- 강도사 이준경 박노준
- 원로목사 이두만 양승일(17) 김인식(1) 김명숙(2) 명혜영(19) 명혜영(19) 이수현(2)
- 여전도사 최복록 정연희 현정남 정복민 장영자 임태주 김경자 배옥인 최지혜 오민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신희숙 김옥순 한영준 박종화 박희자 김성숙 김복순 최영만
- 교정전도사 박영만
- 교육전도사 박진기 김현일 한승일 이훈관 김경희 최원희 김장홍 조재민 최진우 허용구 이두만
- 선교전도사 정성기 정은희 박태양
- 평신도선교사 유병세 김형선 이기성 김현영 고은미

1998. 3. 22. 제98 - 12호
사무엘상 4장 ~ 사무엘상 28장

충현 성경통신 강좌

- (제) 교구 지역 구역 () 이름
- 다음 성경은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4 ~ 10장)
 - 이르기를 명하여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고 아이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였으니 ()
 -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게 못할터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
 - 벤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
 -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
 -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호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
 -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자로 베냐민 사람이 아니요 ()
 -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
 - 다음 성경을 완성 하시오. (사무엘상 11 ~ 15장)
 -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갈갈로 가서 나라를 ()
 - 만일 너희가 여전히 행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
 - 벤세 드리를 펼쳐서 사무엘이 온지와 사울이 나대 맞으며 ()
 -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뿔과 하였다니 요나단이 ()

- 사무엘이 가리고 돌리길 때에 사울이 그의 권총자락을 붙잡으며 ()
- () 안에 맞는 것에는 O표, 틀린 것에는 X표 하시오. (사무엘상 16 ~ 21장)
 - 여호와와 그의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와 그의 부리신 악신 ()를 번거케 한지라 ()
 -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벧세레벨의 사람 오벧이 아들이니이다 ()
 -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루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
 - 그리므로 숙명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노라 하니라 ()
 - 땅에 었도리 세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요나단이 더욱 심하더니 ()
 -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화하여 미친채 하고 대문밖에 그거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
- () 안에 맞는 말을 넣시오. (사무엘상 22 ~ 28장)
 - 이아헬의 아들 아비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이라
 -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 하고 다윗은 수중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 나лага 내 손에 권고히 세 것을 아노니
 -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들 미갈을 강탈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에게 주었더라
 -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을 수해하려 나오셨음이니라
 - 다윗이 불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 수는 ()이었더라
 - 네가 여호와와 의복사들 ()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같은 양생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골로새서 3:12)

발행처: 대한예수교 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성근

교회절약운동

지금은 내핍의 영성을 실천할 때

교회가 에너지, 물자, 경조비 절약에 앞장서야
각 기관과 부서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있기를

행정위원회에서는 IMF 한파에 따른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을 맞아 교회 절약 운동을 추진키로 하고 교회와 온성도들의 성실한 참여와 실천을 기대하고 있다.

나라의 경제 살리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근면 검소 내핍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의 본이 되고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자는 것이 금번 절약운동의 기본 취지이다. 이에 따라 교회는 이번 교회절약운동을 크게 에너지 절약운동, 물자절약운동, 그리고 경조비 절약운동으로 대별하여 실천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적 실천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에너지 절약 운동의 항목들은 냉난방 가동중 출입문 닫기, 사용하지 않는 전등과 전기 전자기기 전원 끄기, 부서별 개인별 전열기구 난방기구 취사용기구 사용하지 않기, 전화는 공무에 한해 간단한 용건만을 위해 사용

하기, 주방과 화장실의 수도물 절약하기 등이다.

참고로 우리 교회의 한 달 전기료는 동절기 평균 1천 3백여원인, 하절기 평균 1천 7백여원인이다. 그리고 이 중 상당 부분은 선교관 엘리베이터 사용전력이 차지한다. 이에 따라 선교관을 출입하는 성도들 중 겨울이 불편한 분들 외에는 가능한 한 걸어 다니는 것이 중요한 실천 항목이 될 것이다.

다음, 물자 절약 운동의 항목들은 각 부서별 예산비품 사무용품 절약하기, 불필요한 인쇄 복사 자재 및 인쇄매수 최소화로 억제하기(각 기관 부서별 소식지 및 회의자료 등), 이면지 재활용 필수화하기,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제하기(종이컵, 나무젓가락, 일회용 접시) 등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은 연 8조원 규모에 이른다.

우리 교회의 경우, 최근 잘못된 음식 문화의 극복을 강조한 결과 버려지는 음식물들이 다소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주일 저녁에는 상당한 양의 음식물들이 버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조비 절약 운동의 항목들은 결혼 및 장례 광고 주간 충현으로 단일과 및 별도의 청첩과 부고 사후 인사장 발송 안 하기, 결혼 축하금 및 장례 부의금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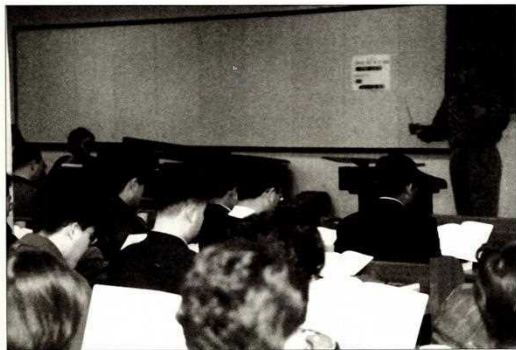
이하로 권장하기, 결혼피로연은 뷔페식으로 하되 1인당 8,500원 이하의 메뉴로 하기(다만, 오후 3시 이후에는 담배품은 가하나 식사 제공은 하지 않기로) 등이다.

이에 온 성도들과 각 기관 및 부서들은 금번 교회 절약 운동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내핍의 영성을 실천해야 하겠다. 특별히 모든 에너지나 물자에 대한 청지기식이 없는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인쇄물과 음식의 흉한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니로부터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와 보전의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 검소 실천의 대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은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검소한 내핍생활에서 시작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다.



'98 부활절 특별 찬양 가브리엘찬양대에서



4월 12일 부활절을 앞두고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김의철 장로, 지휘 조진호 집사, 반주 백금호 집사)에서는 특별찬양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현재 가브리엘찬양대원들은 '주 달려 오는 십자가' 외에 8곡을 연주하기로 하고 매주 목요일 저녁과 주일에 할렘루아홀에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사진). 특별히 가브리엘찬양대에서는 지

난해 성탄절 특별찬양제대와 마찬가지로, 연주 중에 온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순서도 준비하고 있다.

가브리엘 찬양대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대원들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깊은 은총 속에서 잠길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기도 지원이 요청된다.

설교 테이프 평일에 사무국에서 보급

교회는 테이프 보급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한 방침에 따라, 보급소 자리에 이웃 구제를 위한 물품창고를 설치하는 한편 주일 설교 테이프는 사무국 총무과에서 평일에 보급기로 했다.

사무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설교 테이프는 주일예배 및 5부, 찬양예배 설교이며, 개인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주중에 있었던 다른 설교들의 비디오 테이프도 구입할 수 있다. 설교 비디오 테이프의 가격은 개당 5천원이며, 오디오 테이프는 60분짜리가 7백원, 90분짜리가 1천원이다.

주의! 교회 주변 폭력

우리 교회 주변에도 주일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유·초·소년부나 중·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불량배들이 간혹 등장한다. 이에 따라 교회학교에서는 각 부 학생들의 귀가 지도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그리고 성도들도 시선을 넓혀 귀가 길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점을 지어 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충현성경통신강좌

본당 로비에 비치된 별지 이용

주간충현 8편 하단에 게재되고 있는 성경통신강좌는 이미 2월 8일부터 별지로 인쇄되어 교회 본당 로비에 비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간충현에 인쇄된 부분을 잘라서 사용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다.

성경통신강좌가 주간충현에도 계속 실리는 이유는 2월 15일자 주간충현을 통해 알려진 대로 교회의 공식적인 통신강좌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자료화 한다는 면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충현의 성도들은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가능한 대로 별지에 인쇄된 성경통신강좌를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수요2부예배 시간 조정

4월 1일부터

지각 7시 30분으로

예배위원회에서는 동절기가 지나감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수요2부예배 시간을 기 30분으로 30분 늦추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도들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예배시간보다 미리 도착하여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하겠다.

바벨론 왕의 멸망을 경고함 (2)

(이사야 14:12-23)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여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능글하고 담대하게 바로 살다가
죽는 날에 바로 죽어서 영광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 장 인 목사

<지난 호에 이어>

1.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노를 지어 두라고 예언하였습니다
2. 바벨론 왕이 음부에 떨어질 것에 대한 노를 지어 두라고 예언하였습니다

3. 바벨론 왕이 멸망하게 될 원인은 교만죄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 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결국을 모든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은고"(12절)

난 사람이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들어서 녹두가 잘되면 녹두알이 주먹만 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식으로 조금 높아지면 자기를 태산같다면서 교만해지니까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남보다 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조심하여 누리고 지혜로 선한 일에 충성해야 하는데 그는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사람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업신여기고 자기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이 천년, 만 년 살 줄 알고 교만했습니다.

4. 바벨론 왕의 멸망한 형편이 어떠한가

(1) 자신은 무덤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바벨론 왕의 죽음 육체가 매장한 무덤에서 고이 썩지 못하겠다고 예언합니다. 아직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나지 않았는데 이사가 선지자가 그가 이 세상에 나서 어떻게 된 것을 하다가 어떻게 죽어서 그 시체를 장례하였으나 무덤에 있지도 못하고 원수에게 밟히는 시체가 될 것인데 대해 100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섭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댕 밑에 빠지리라...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거단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찢려 들구덩이에 빠진 죽고도 물러 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네 네가 땅을 밟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인자함을 얻지 못하니..."(16-20절)

느부갓네살 왕이 나이가 많아져서 아들 예리모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은화하여 편한지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화한 느부갓네살이 아들인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폐위시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바벨론 나라는 다시 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폐위되었던 예리모다를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하여 장관들이 감옥문을 열고 "이제 임금님은 나오셔서 이 나라

를 다스려 주시길 바랍니다"하며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였습니

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아들 예리모다를 얼마나 혼이 났던지 "나는 여기 있지, 감옥문 밖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면서 안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왕위에 올라서 조금 잘 못한다고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죽은 줄 알고 감옥문 밖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갔다가는 이번에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직접 와서 용서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의 죽은 시체를 자기 눈으로 보면 안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들이 모여 의논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시체를 무덤에서 파내어 예리모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리모다의 아버지의 시체에 침을 뱉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체를 다시 묻지 못하게 하고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2) 후손에게도 멸망을 물려 주었습니다
첫째, 후손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고 할지니라"(20절)

아버지의 시체를 파서 썩어진 예리모다의 아들인 얼마나 패역한 자입니까. 악을 행한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후손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이나 땅을 위하여 생애가 성음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21절)

도륙이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메대와 바사를 준비시켜 느부갓네살 왕의 자손을 다 도륙하고, 바벨론의 모든 자손을 땅 위에서 다 끌어 버렸습니다. 멸망의 비를 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자손을 다 청소해 버리겠다고 하였으니 대단히 무서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메대 바사의 다리오 왕이 바빌론의 불을 정령하고 유브라데스강의 물줄기를 돌리서 바벨론을 황무지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바벨론 성터를 아주 썩말로 만들었고 그

후 100년 세월이 지나도록 거기에 아무도 살지 않아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에 살 때에는 누가 더 낫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는 가난뱅이보다 낫고, 세력이 높은 사람이 세력없는 사람보다 낫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무식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둘째로, 내세에 가서는 누가 더 낫습니까? 인생 나그네 생활이 끝나고 영혼이 내세에 갑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이때에 누가 더 낫습니까? 왕궁 보석으로 꾸민 하늘나라 시민과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물 한 방울도 없는 지옥의 죄수를 비교할 때에 누가 더 낫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남보다 못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고 못된 것을 하던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에 간 것과 그 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집사, 장로, 목사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나에 더 관심을 갖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로, 10년, 100년 후의 사람들이 누구를 낳고도 평가해 주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력을 부리면서 못된 것을 한 사람을 낳고도 하겠습니까,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절개를 지키던 사람을 낳고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당장에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내가 죽은 다음에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행하고 칭찬해 주셔야 하겠고 뒤에 오는 자손들의 칭찬을 무덤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 왕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잘 살려고 죄를 범하지 말고 세상에서 남보다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억울해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잘 살고 도덕을 하여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능글하고 담대하게 바로 살다가 죽는 날에 바로 죽어서 영광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 바벨론 왕은 자기 사기는 귀신인 모든 신 가운데 가장 높다고 교만하였습니다

"...네가 복국 집회의 산 위에 좌정 하리라"(13절)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권세가 최고이고 재산도 영화도 자기가 최고이며 다른 나라의 왕들은 자기 나라의 마음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만하였습니다.

(3) 바벨론 왕은 하나님과도 비길 수가 있다고 교만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리라 하도다"(14절)
땅 위에서 역사하는 신들은 물론이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도 어깨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으니 교만이 극도에 달하였습니

다. 사람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좀 나은 자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인물이 잘났고 돈도 많았고 권세가 당당했고 지혜가 있었으니 그는 교만한 만입니다. 그러나 구덩이가 자기네끼리는 큰 늪, 작은 늪이 있지만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끼리는 잘나고 못





김성목 목사

이방인의 고백

(스가랴 8:23)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된 우리가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통하여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스 가라는 이방인들에게 열릴 구원의 문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곧 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다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속 8:23). 오늘 이 말씀은 유다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완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정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도 하여금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하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저주하신 에덴동산에서 시작됩니다(창 3:15). 그 후 구약의 역사가 전개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를 심히 번성케 하며 그의 후사를 축복하시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창 17:1-8).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의 언약을 주셨습니다(출 19:4-6).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레 26:12).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고(창 1:2-3) 다윗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기뻐하여 주셨습니다(삼 6:13).

그러나 그 후 언약의 역사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선지자들의 안타까운 외침으로 전개됩니다. 그들의 죄에 부어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낙담이고 그들은 또다시 포로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렘 11:16, 23).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심판으로 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렘 11:19, 30-11:11 등).

결국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메시아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마 1:23).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중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골 6:13).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갈 3:14, 29).

이 놀라운 구속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전지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선배가 되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록한 신성한 글들이 다른 많은 민족과 나라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왕들, 선지자들, 사도들 및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뚜렷이 증거하였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진배주었습니다.

교회라 시작되기 오래 전에는 유대교가 감람산 이방인들의 세를 비추는 빛이었습니까(사 42:6, 49:6). 물론, 그들의 선교사명은 우리의 사명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중언이었고(사 43:12) 이방인들과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다리였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나셨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교회를 대표하였습니다. 구약은 가장 메시아가 될 것과 그분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을 곳곳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구약에 예시한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한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임하여 주셨고 생명의 죄와 공의, 정결을 깨닫게 해주신는 능력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은 우리들 모두의 영적 어머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갈 4:26).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였습니다. 그곳은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유대 왕의 계보가 영원토록 축복받았다고 여겨진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

시는 영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안 지성소의 휘장은 둘로 찢어져 새언약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과 영원한 언약의 예루살렘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역사의 오묘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에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시던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공음에 있겠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배부시는 공음으로 이제 죄의도 공음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음을 베풀려 하심이라”(롬 11:30-32).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유대인과 그들을 향한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렘 31:33)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되 그분의 신부와 같은 기록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출 19:4-6). 이러한 영적인 결혼관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변하지 않을 사랑과 생명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개하지 아니라 일컫는 그들을 내보내셨던 것입니다(사 50:1).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음, 언제나 동일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결국, 부르시기로 계획하셨던 모든 이방인들이 교회에 가득차면(롬 9:6)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택하신 모든 유대인들을 다시 부르사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롬 11장).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고난과 흠이점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계획하신 구원 역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마 13:11).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모두 우리의 백성으로 부르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음히 여기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러

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믿는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기뻐하며 함께 잔치에 초대될 것입니다(사 2:2-4 등). 이것은 장차 있을 일이지만 ‘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롬 11:26) 그 때가 그리 먼 장래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은 유대인들이 흠이 없고 그리스도 포로생활을 겪음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배어내고도 남은 그 루터기로 모든 이방인까지 불러주시고 불순한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언약에 불순종한 유대인들과 언약의 밖에 있던 이방인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면 이방인들도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버림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롬 11:21-22).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겸손히 순종하기 위해서 본문에 기록된 이방인의 고백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삼아야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니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나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속 8:23).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영광에 거하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주를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는 같이도 권리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음으로 이미 새 예루살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마 5:13-16). 우리가 이 소금을 각각 고만만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눠서 전파를 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을 발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된 우리가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통하여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

선교의 성경적 근거 5

성경 '선지서'에서 발견하는 선교

이사야서는 선교의 책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면, 선지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해 줍니다.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방의 구원을 예고하십니다. 특히 모든 선지서 중 이사야서는 선교의 본문으로 알려질 정도로 선교사상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임"(사 21:4, 사 60:1-3; 렘 3:17; 속 8:20)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사 56:7)입니다. 애굽 및 앗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나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을 맞을 것이며(사 19:25),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열방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사 66:19).

선악성경이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나가는 원시력을 보여 준다면, 구약은 밖에 있는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점에서 구심력을 보여 줍니다. "때가 이르러 열방과 열국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장로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스리고 뿔과 활을 당기는 뜻과 및 두발과 아나과 또 나의 명성을 들

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민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와 그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차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림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사 66:18-21).

이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최고 정점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사건에 대한 예언은 다

른 선지자들의 글에도 나타나입니다. 스가라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

여호와와 보좌와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와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렘 3:17)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가 가시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모든 약속의 종착점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서에서 말하는 선교는 종말적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을 뒤덮은 어두운 역사의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래의 하나님으로 위로와 희망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종말의 때가 이르면, 남나 종들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골 2:28-32), 온 세상에 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렘 23:14). 그런데 이 종말적인 예언은 임차적으로 예수님의 전도활동에서, 또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 움직이는 성도들을 통해 계속 성취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열방을 향한 선교, 곧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의 대열에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들은 두발에 힘을 주어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위원회 제공)



리라(속 8:22)고 하였고, 학개 선지자 역시 "만국의 보배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을 찬만 하게 할 것"(학 2:7)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에레미야 역시 "그때에 예루살렘이

선교 정보 나누기 - 케냐



아프리카 기독교 중심 기지 케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변 회교 국가들로부터의 극심한 위협에 처해

케냐의 자연

케냐는 적도 아래의 열대지방이지만 서도 만년설이 쌓인 산이 3개가 있을 만큼 지형의 변화에 따른 기후의 차이가 심하다. 열대우림지역, 비옥한 농경지, 끝이 보이지 않는 입암 단지 등 풍성하게 보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국토의 1/3 이상이 경작이 불가능한 불모지이거나 사막으로 되어 있다. 고지대는 아침에 일찍이 날 만큼 서늘하며 저지대인 사막은 오래 속에서 개만이 반죽이 될 정도로 뜨겁다. 사계절이 동시에 있는 나라로 보면 좋을 것이다.

케냐의 사회

면적은 582,600km이며 북부와 동부는 사막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구가 물 공급이 좋은 남부와 서부에 살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연 인구 증가율을 나타내며 한 가족에 평균 8명의 자녀가 있다. 1963년 12월 12일 나이로비(케냐의 수도로 마사이족 말로 찬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협상에서 영국

으로부터 독립되었으며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경제는 인건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생필품, 공산품 생산이 발달되어 있다. 각종 생산품은 이웃나라에 수출되고 있어 동부 아프리카의 젖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케냐의 국민 교육제도는 8년제 초등학교, 4년제 중등학교, 대학 교육의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전과목으로 영어로 공부한다. 신문은 자치적으로 발행되고 대개 검열을 받지 않으며,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이 각각 발간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시설은 정부 소유이며 프로그램은 공용어인 스와힐리어와 영어로 방송되는데 많은 프로그램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수입된다.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전통을 가진 나라이며 음악과 춤은 사회생활에서 불가결의 역할을 한다.

케냐의 종교

케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기독교와 회교를 비롯한 힌두교, 바하이교, 불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동종교, 일본교 천리교 등 많은 종교가 없을 정도이다. 다행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해 호의적이며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부 고위직을 맡고 있다.

케냐의 선교

케냐에 개신교가 소개된 것은 약 150년 전 영국의 국교 성공회를 시초로 보고 있으며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약 100개 단체에서 1,85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아프리카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쪽의 회교국가인 소말리아와 수단을 비롯한 주변 회교 국가들로부터 많은 위협과 압력을 받고 있다.

만약 케냐가 회교와 반대편 아프리카 전체의 회교화는 시간문제이며, 반대로 케냐가 완전히 기독교화 되면 아프리카의 기독교화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러므로 케냐 선교의 중요성은 단순히

케냐의 복음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아프리카 전체 복음화와 직결되기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케냐의 전략적 중요성을 통고사 트리니티는 기도 계속 요청되고 있다.

